

- 주요 뉴스: 세계 각국(영국스위스대만 등), 금리인상에 동참 일본은 통화정책 완화 유지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전주 대비 소폭 증가. 노동수요는 여전히 견고
 - ECB 슈나벨 이사, 경기악화 가능성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 필요
 - 일본, 환율 방어 위해 외환시장 개입. 환율 안정 효과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8%],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1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 약세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및 여행관련주 매도 증가 등으로 1.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가는 약보합, 엔화는 당국의 시장개입으로 1.2%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공격적인 통화긴축 예상 등으로 '11년 2월 이후 최고치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3년 9월 이후 최고 수준

※ 원/달러 1M NDF환율(1405.4원, -4.3원) 0.2% 하락, 한국 CDS 상승

		9/22일	9/21일	전일대비			9/22일	9/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58.0	3,789.9	-0.84%	국채 금리 10y	미국	3.71%	3.53%	18bp
	유럽	399.76	407.05	-1.79%		독일	1.97%	1.89%	7bp
	중국	3,108.9	3,117.2	-0.27%	CDS 5y	한국	45bp	40bp	5bp
	일본	27,154	27,313	-0.58%		중국	96bp	91bp	5bp
	한국	2,332.3	2,347.2	-0.63%	위험 지표	EMBI+	-	435	-
환율	달러지수	111.26	110.64	0.56%		VIX	27.35	27.99	-2.29%
	유로화	0.9836	0.9837	-0.01%		WTI유	83.49	82.94	0.66%
	엔화	142.39	144.06	1.17%	원자재	구리	349.9	351.2	-0.38%
	위안화	7.0781	7.0502	-0.39%		금	1,671.2	1,673.9	-0.16%
	원화	1,409.7	1,394.2	-1.1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세계 각국(영국·스위스·대만 등), 금리인상에 동참. 일본은 통화정책 완화 유지

- 영란은행은 정책금리를 0.50%p 인상한 2.25%로 결정.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7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은 0.75%p 인상을 주장하여, 향후 추가적인 인상 단행하면 인상 폭이 상당한 수준일 가능성
- 이와 같은 긴축 기조 지속은 정부의 수요촉진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Capital Economics). 한편 3/4분기 성장률이 -0.1%를 나타내 기술적인 경기침체(2개 분기 연속 역성장)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
- 스위스 중앙은행도 정책금리를 0.75%p 인상한 0.50%로 제시하여, 7년 만에 마이너스 수준을 탈피. 토마스 조르단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
- 이 외에 대만(1.500%→1.625%), 노르웨이(1.75%→2.25%), 필리핀(3.75%→4.25%) 등도 금리인상 단행. 반면 튀르키예는 연간 80%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에도 경제성장을 이유로 정책금리를 인하(13.0%→12.0%)
- 일본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초저금리 기조 지속한다고 발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0%에서 유도할 계획
- 구로다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 시점까지 완화 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발언. 상황에 따라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고 부연. 다만 일부에서는 여타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완화기조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전주 대비 소폭 증가. 노동수요는 여전히 견고

- 9월 3주차 기준 해당 건수는 21.3만건으로 전주(20.8만건)에 비해 증가. 하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수요 우위 여건이 지속. 최근 고용이 둔화세를 나타내지만, 대규모 해고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UKG의 Dave Gilbertson)
- 한편 이날 발표된 8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116.2를 기록하여 전월비 0.3% 하락. 노동부문 지표는 양호하나, 전반적으로는 경기둔화 신호가 많다고 평가. 특히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여 기술적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

■ 골드만삭스, 연준 연방기금금리의 최고치 전망을 상향 조정

- 연준이 향후 3회(금년 11월 및 12월, 내년 2월)에 걸쳐 각각 0.75%p, 0.50%p, 0.25%p 인상하여 연방기금금리가 4.50~4.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 이는 기존 예상치(4.00~4.25%) 대비 0.50%p 높은 수준

■ ECB 슈나벨 이사, 경기악화 가능성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 필요

- 유로존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금리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언.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 폭은 0.50%p와 0.75%p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고 첨언

■ EU, 러시아 추가 제재 위해 유가 상한제와 하이테크 제품 수출 제한 등을 논의

- 임시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인적,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 구체적으로 유가 상한제, 하이테크 제품 수출 제한, 개인 및 외교관 제재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언급. EU 정상들은 10/6~7일 이번 방안 관련 회의를 가질 계획

■ 중국개발은행,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 대출을 확대할 방침

- 이르면 3/4분기 내에 인프라 투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8월 국무원에서 지방정부를 통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 이후 중국개발은행은 최근까지 1500억위안의 대출을 제공

■ 일본, 엔화 약세 방지 위해 외환시장 개입. 환율 안정 효과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

-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엔화의 추가 약세를 제어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24년 만에 단행. 이에 장중 달러당 145엔을 넘어선 환율은 일시적으로 141엔을 하회. 다만 당국의 시장개입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번 조치도 엔화 약세를 일시적으로 멈추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Equiti Capital의 Stuart Cole)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22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 -28.8, 8월(-25), 예상치(-25.8)

■ 주요 경제 이벤트(9/23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강연, 미국 및 유로존 9월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금리인상, 전세계적인 차입비용 증가를 유발 - Financial Times

(A global backlash is brewing against the Fed)

- 연준의 금리인상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효과적이지만,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영향 등으로 미국의 무역상대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 특히 연준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면서 여타국의 물가상승으로 연결
-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공격적이어서 극빈국의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Mohamed El-Erian은 연준 정책으로 인해 전세계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달러화 강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각국의 입장 차이 등으로 기대난 - 블룸버그

(Coordinated Dollar Intervention Is a Long Shot)

- 연초 이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 충격이 점진적으로 증가. 이에 일부에서는 주요국들이 모여서 달러화 대비 자국의 통화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지만 다음의 3가지 이유로 해당 조치는 가능성이 낮은 편
- 첫째, 그 동안 EU와 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불안 보다 경제성장을 강조. 또한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경제여건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 둘째,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연준의 금리인상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타국의 달러화 약세 유도는 매우 어려운 과제
- 셋째, 미국의 달러화 강세 용인의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을 목표로 진행. 이를 통해 중국 기업들은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될 소지

■ 러시아산 저가 천연가스,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단기 효과는 미미 - WSJ

(China Will Benefit From Cheap Russian Gas—Eventually)

■ 영국 신임 정부의 경제정책, 실질적인 투자소비 촉진 성과는 불투명 - Financial Times

(Trickle-down economics is no substitute for a growth plan)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